

Issue Comment

- ✓ S&P, 현대차그룹 계열사 신용등급 하향
- ✓ 금융부문의 경우 조달금리 상승부담 발생
- ✓ 글로벌 PEER 와 비교하면 완성차는 양호한 신용등급
- ✓ 2~3 차 벤더로의 신용등급 추가하향 가능성이 더 큰 우려요인

[자동차] S&P, 현대차그룹 신용등급 하향. 2~3 차 벤더로의 확대 가능성에 주의

- 10 월 31 일 국제 신용평가사 스텠더드앤드푸어스(S&P)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신용등급을 기존 'A-'에서 'BBB+'로 하향, 등급전망은 '안정적'으로 발표. (이전 등급변경은 2015년 1월 30 일 A-로 상향)
- 등급 하향의 이유는 악화된 수익성이 향후 1~2 년 사이 크게 반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기반. 실적 회복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1)환율과 무역분쟁 등 글로벌 변동성 확대, 2)환경규제 강화, 3)노사갈등 등을 언급. 다만 10 조원이 넘는 순현금 포지션을 바탕으로 신용지표가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
- 완성차 신용등급을 낮추면서 계열사 신용등급도 하향. 현대모비스 A→BBB+, 현대카드 BBB+→BBB, 현대캐피탈 A-→BBB+. 글로비스 등급 전망도 '긍정적'에서 '안정적'으로 하향 조정. 현대카드·캐피탈 등 금융사의 신용등급은 하향으로 향후 자동차금융에서 조달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 발생
- 현대차, 기아차의 신용등급 하향이 부정적인 소식임은 맞지만, 과한 우려는 금물이라는 판단. 글로벌 주요 경쟁사와 비교하면 일본업체와 프리미엄 유럽업체보다는 낮지만, 미국과 양산 유럽업체보다는 양호한 상황.
- 다만 현대차그룹의 국내 신용평가에 미칠 영향과 2~3 차 벤더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. 국내 신용평가사인 한국기업평가는 이날 현대차와 기아차의 신용등급은 유지하지만, 전망을 기존 '안정적'에서 '부정적'으로 변경. 한국신용평가도 기존 신용등급 재검토 예정을 밝힘
- 납품구조상 자동차부품사의 신용등급은 완성차그룹에 영향에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감안하면, 부품사 신용등급의 추가 하향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. CAPEX 투자와 실적둔화가 맞물린 상황에서 추가하향이 발생하게 된다면 자금조달과 상환에 대한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

S&P 기준 주요 글로벌 업체의 신용등급 및 전망

업체	도요타	혼다	BMW	닛산	다임러	현대차	기아차	폭스바겐
신용등급	AA-	A+	A+	A	A	BBB+	BBB+	BBB+
전망	Stable	Neg	Stable	Stable	Stable	Stable	Stable	Stable
업체	르노	GEELY	GM	Ford	FCA	PSA		
신용등급	BBB	BBB-	BBB	BBB	BB+	NR		
전망	Stable	Stable	Stable	Neg	POS	NR		

자료: Bloomberg, SK 증권

-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투자판단 3 단계 (6 개월 기준) 15% 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 미만 → 매도